

## 한국 문화의 가장 강렬한 '모던', 굿판

April, 2014 | 유선애 기자

page 1 of 8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는 시대. 자기 계발서는 한목소리로 '한 우물을 파라'고 말하지만 박찬경은 '기능적인 전문인'이 되길 거부한다. 일찍이 미술계 안에서 창작과 비평, 기획을 오갔고, 이를 디딤돌 삼아 영화를 연출한 그는 한국 현대사와 무속, 미디어 아트를 버무려 '신神천지'를 완성했다



박찬경은 '산만한' 이력의 소유자다. 서양 회화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사진을 배운 뒤 미술 평론을 하고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전시를 열었으며 다큐멘터리를 찍는다. 작가와 감독 사이에서 호칭을 고민하는 혹자는 손쉽게 그를 '박찬욱 감독 동생'으로 부른다. 하지만 백남준아트센터 박만우 관장은 이 변화무쌍한 예술가의 복잡다단한 필모그래피를 관통하는 목직한 주제를 근거 삼아 "박찬경은 쉽게 변하지 않는 작가"라고 표현한다. 사진과 비디오, 설치 작업을 막론하고 냉전과 분단, 파독派獨 광부 등 '한국 현대사의 균열'을 차분히 더듬어왔기 때문이다.

2008년은 박찬경 작가를 감독으로 이끈 결정적인 해였다. 그해 발표한 45분짜리 단편영화 <신도안>은 박정희의 1968년 계룡산 국립공원화화와 1975년 종교 정화 사업, 전두환의 1984년 삼군 통합 본부 계룡대 이전을 거치며 민족 종교의 메카였던 계룡산 일대가 타격을 입은 사건들을 고증 자료를 통해 밝혀낸 작품이다. 이후 2010년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에>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여성 노동자 22명이 감금된 채 화재로 사망한 '그린힐 봉제공장' 사건을 다뤘다. 2011년부터 황해도 출신 큰무당인 김금화를 주제로 픽션 다큐멘터리 <그날>, <갈림길>을 제작해왔다. 장편영화를 향한 박찬경 감독의 '완결된 예고편'을 봐온 관객에게 지난 3월 개봉한 장편 데뷔작 <만신>이 낯설지 않은 이유다.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확장한 <만신>에는 기존 영화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미감과 환상이 뒤엉켜 있다. 애니메이션과 CG를 덧입히고 음향 효과를 극대화해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의 벽을 허물었다.

하지만 박찬경 감독은 두 장르를 매끄럽게 이어 붙이려 하기보다 충돌시키고 거칠게 뒤섞어놓는다. 배우 문소리가 굿을 하는 장면에서 느닷없이 김금화 만신이 등장하는 등 판타지 사이로 현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전무후무한 표현 양식 속에서도 박찬경 감독은 자신의 문법을 잃지 않는다. 영화는 김금화 만신을 앞세워 일제 강점기를 시작으로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 굵직한 한국 역사 위를 걷는다. 김금화 만신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들듯 그는 미술과 영화, 픽션과 다큐멘터리의 경계를 오간다. 그리고 현재 그의 직함은 제8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_미디어시티서울 2014 예술감독이다.



회화로 시작해 사진과 평론, 영상을 지나 50세에 상업 영화 신인 감독으로 대중 앞에 섰다. 복학생이 신입생 환영회에 불쑥 등장한 듯한 느낌이다. 기분이 어떨까.

-많은 전시를 해왔지만 아무래도 영화를 개봉하고 나면 대중의 반응에 더 예민해진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처럼(웃음).

**2010년 <영클 분미>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태국 출신의 미디어 아티스트 아피차퐁 워라세타 쿤을 비롯해 최근 스티브 매킨이 <노예 12년>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다. '미디어 아티스트의 전성기' 같은데....**

-미디어 아티스트의 영화 제작은 최근에 두드러지는 현상이지만 넓게 보면 일찍이 파블로 피카소, 페르낭 레제, 한스 리히터, 신디 셔먼 등 수많은 예술가가 영화를 제작해왔다. 영화는 음악, 사진, 미술 등 영화 탄생 이전의 예술에 많은 빛을 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이 영화 안에 뭉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장르임에 분명하다.

**영상 미술을 하다 상업 영화 영화를 연출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

-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관객에 대한 고민이 컸다. 미술 같은 전통 장르에서는 관객이 작품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루함에 대한 내성도 있고(웃음). 하지만 영화는 다수의 관객을 어두운 방에 모아놓고 보기를 강요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추방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 역시 지루한 영화는 참기 힘들다. 작가로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지키면서 관객이 영화 중간에 극장을 뛰쳐나가고 싶거나, 극의 맥락을 놓치는 일은 줄이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 <만신>을 ‘판타지 다큐 드라마’라고 칭한 것이 흥미롭다. 기록물 성격이 강한 다큐멘터리와 영화적 재미 모두를 담고자 한 것인가?**

-영화 <만신>은 다큐멘터리가 기반이긴 하지만 관찰 중심적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주요 특성에서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말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무당과 무속을 소재로 다루는 만큼 영화 속에 종교적 상상과 환상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싶었다. 한국적 상상력을 강조하기 위해 굳이 ‘판타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흔히 판타지 하면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같은 영화를 먼저 떠올리지만, 무속이나 불교 등 한국 문화에도 강력한 판타지 전통이 있다. 현대로 오면서 이 장르를 서양에게 점령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굿 자체가 시각적으로, 강렬하고 예쁜 소재가 많다. 칼과 방울, 부채를 비롯해 무구와 무복 등이 무속의 화려함을 잘 살려 이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다.



**무속화를 어지럽게 훑는 영상,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 기괴한 음향 등 다양한 장치를 영화에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특히 김금화 만신의 내림굿 장면이 인상적이다. 마치 1시간 30분 분량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보는 것 같았다.**

-굿은 현장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소름 같은 것이 있다. 현장성을 영화에 담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일반 영화가 관객이 극장 안에 앉아 단순히 이야기를 따라가는 형식이라면 <만신>은 보는 영화가 아닌 체험하는 영화로 만들고자 했다. 굿을 '경험하는' 영화 말이다. 이승과 저승을 오가고, 시간을 넘나드는 굿판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주기 위해 애니메이션과 특수효과를 과감하게 버무렸다. 각각의 요소가 충돌해 산만하게 느낄 수 있지만 부분은 부분대로, 전체는 전체대로 생기 있게 표현하려 했다. 낯설고 생경하게 만들어 굿 하면 고리타분한 전통을 떠올리는 편견도 깨고 싶었다.

**<만신>의 모체인 작품 <그날>과 <갈림길>과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애니메이션의 활용이다.**

-영화에 무속 신이 많이 등장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신화처럼 설화를 배경으로 한다. 설화 속에 깃든 상상을 직접 재연하기보다 민화나 무속화 등 옛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영화 중간에 등장하는 임경업 장군이 활 쏘는 장면의 애니메이션은 민화를 차용했는데, 지금 봐도 그 색감이 참 아름답다. 원화 자체로도 참 멋지고 현대적이기까지 하다. 한국 전통 산수화와 '책가도' 등을 현대와 재미있게 섞어 표현하는 김지평 작가가 그림을 그린 다음 이후 애니메이션으로 완성했다.

**무의식적 미감인지, 이미지를 바라보는 방식이 기성 영화감독과 비교해 많이 다른 것 같다.**

-특정 장면이나 디테일에서 이상한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다(웃음). 예를 들어 배우 문소리 씨가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촬영할 때 목선과 쇄골을 섬세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식이다.

**주인공인 만신 김금화에게 여러 요구와 주장을 해야 했을 텐데, 두렵지 않았나(웃음)?**

-때때로 '내 속이 흰히 보이겠지' 싶어 무섭기도 했다(웃음). 황해도 출신다운 기백이 있는 꽃꽂한 분이다.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본 것은 파주 적군 묘지에서다. 파주 북한군·중국군 묘지는 한국전쟁 당시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한 북한군과 중국군의 유해를 모아 1996년 조성한 곳이다. 원한이 짙게 깃든, 영靈이 강렬하게 영기는 현장이기 때문에 진오귀굿(죽은 이의 한을 씻기고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한 굿)을 하기 전부터 무당들이 험한 꿈을 꾸고, 두통을 호소하며 꽤 힘들어했다. 나조차 두려운 촬영이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으니까. 재미있는 것은 다들 고통스러워하는 와중에도 김금화 만신만 홀로 왕처럼 앉아 있더라. 오히려 평소보다 기가 빠지는 것 같았다. 그 절대적인 카리스마란.... 극단적인 상황에 서면 누가 큰 무당인지 대번에 드러난다.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의 그늘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만신> 역시 무속을 앞세워 그 뒤에 감춰진 한국 현대사를 비추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충분한 의미를 갖지만 다들 회피하는 문제에 쉽게 끌린다. 특히 급속한 서구화 속에서 벌어진 기형적인 사건들에는 더더욱 그렇다. 작가마다 정의하는 '아름다움'이 다르겠지만 예술은 미<sup>美</sup>와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예술가는 추<sup>醜</sup>에 관심이 많다. 디자인에서는 미가 중요하지만 예술에서는 추가 더 큰 역할을 해왔다. 그렇다고 아름다운 것을 배격하는 것은 아니다.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윤리적인 울림을 주는 것이 내게는 아름답다. 영화 <변호인>은 참 아름답더라.

**지금까지 '아시안 고딕'이라는 조어를 자주 사용했다.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서구 현대 문명을 받아들였지만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긴 병폐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대로 세계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위기의식을 담은 작품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고딕' 하면 높고, 날카로운 형상의 건축을 연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딕은 그런 의미라기보다 18~19세기 유행한 문학 사조인 '네오-고딕'에 더 가깝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나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속에는 산업 사회에 대한 좌절감, 과학기술에 대한 불안감과 회의가 담겨 있다. 당시 낭만주의 예술가들이 가진 염려가 현재 한국 예술가의 고민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에서 '아시안 고딕'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이다.

**일전에 독일 낭만주의 회화 작가 카스파어 다비트 프리드리히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적 있다. 독특한 미감의 근원이 궁금하다.**

-서양의 미술 사조나 문학 사조, 특히 낭만 시대작품을 좋아한다. ‘굿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원형이다. 민족의 뿌리를 찾자’ 식의 주장을 하려고 작업을 해온 것은 아니다. 아무리 한국적인 것을 소재로 삼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동양인인 동시에 서구인이다. 이를 분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영상이야말로 서구에서 시작한 매체 아닌가. 서구 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찬욱 감독과 함께 ‘시네필 형제’로도 유명하다. 특별한 영화 체험이 있을 것 같다.**

-우리 형제는 원하는 영화를 언제든 찾아서 볼 수 있는 첫 세대였다. 복사 가능한 VHS 테이프가 보급되면서 극장에서 보지 못한 영화를 집에서 보고, 영화 전문지 <키노>가 발간돼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을 좋아했다. 타자기가 괴물로 변하는 등 괴기스러운 환상이야말로 ‘현대 고딕’이다. 짐 자무시나 데이비드 린치 감독 영화도 좋아했고,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는 앨프리드 히치콕 감독의 작품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장 킵 고다르는 두말할 것 없는 ‘영화의 신’이고(웃음).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영화적 체험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한 힘임은 분명하다. 당시 영화가 우리 세대의 유일한 해방구였으니까. 그야말로 굿 같은 것이니까.

**영화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는데 정작 영화 제작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90년대 초 형의 데뷔작 <달은... 해가 꾸는 꿈>에서 미술 스태프로 도와준 적 있다. 옆에서 지켜보니 영화감독이 거창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은 투쟁이더라. 남다른 의지와 예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스태프를 통솔하는 리더십과 사교성 등 종합적인 재능이 필요한 일이었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다.

**이후 형은 대한민국 최고 영화감독, 동생은 최고 미디어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형제가 예술을 업으로 삼고, 동시에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다.**

-집안 분위기가 미술에 친숙했다. 아버지가 미술에 관심이 많으셨다. 큰아버지도 예술에 조예가 깊고, 외할아버지는 서화 컬렉션이 있을 정도였다. 미술 작품을 보고 자랐고 형도 나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보통의 한국 가정이 그러하듯 장남인 형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예술가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이름난 수재였기에 더욱이 예술을 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다. 일전에 형이 어느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나는 판사나 교수, 동생은 미술가로 장래가 정해져 있었다. 그게 늘 불만이었다”고 말한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형도 그림을 잘 그리고 안목도 있었으니, 지금 돌아보면 짜증이 날 법하다. 반면에 나는 형만 판·검사를 바라는 집안 분위기를 보면서 ‘왜? 난 바보야?’ 하며 분개했다(웃음).



박찬경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1997년부터 <블랙 박스 냉전 이미지의 기억>, <세트>(2000), <파워통로>(2004), <비행>(2005), <신도안>(2008), <그날>(2011)과 <갈림길>(2012) 등을 발표했다. 금호미술관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삼지아트 스페이스, 아뜰리에 에르메스, PKM 갤러리, 아카데미 솔 로스 즐리투데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형인 박찬욱 감독과 함께 '파킹 찬스'라는 프로젝트를 결성해 영화 <파란만장>(2010), <청출어람>(2012), <고진감래>(2013)를 공동 연출했다. 2004년 에르메스 미술상을 수상했으며, <비행>은 2008 오버하우젠 단편영화제 경쟁 부문, <신도안>은 2009 국제 실험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에>로 전주영화제 한국 장편 부문 대상을, <파란만장>으로 2011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단편 부문 황금곰상을 수상했다.

**아마추어 화가인 아버지부터 박찬욱 감독까지, 세 사람이 모이는 날은 어느 매체에서도 볼 수 없는 '세기의 대담'이 이뤄질 것 같다.**

-영화 이야기밖에 안 한다. 더 해야 한다면 집안 이야기(웃음). 한국 부자 간의 대화가 그렇듯 다정다감하지 않은 않다. 아버지가 미술을 워낙 좋아하시니 오히려 나보다 전시를 더 많이 보신다. "이 전시 좋다" 하시면 나는 심드렁하게 듣는 식이다.

**9월에 열릴 제8회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_미디어시티서울 2014 예술감독으로 선정됐다. 현직 작가를 감독으로 세운 이례적인 인사다. 창작과 비평, 기획 등 미술계 안에서 여러 분야에 몸담아온 박찬경 감독이 비엔날레와 만나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날지 기대가 크다.**

-미디어시티서울은 서울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미술 행사다. 일반 관객에게는 덜 알려졌지만 한 회 기획에 수십 억 원의 예산이 드는 대규모 전시이며, 국제적인 비엔날레로도 손색없는 전시를 해왔다. 서울시립미술관 김홍희 관장님이 작가임에도 나를 감독으로 추천한 이유는 지금까지 보여온 아시아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번 비엔날레에 강하게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 역시 반가운 일이다. 미국과 서구 유럽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성을 강조하는 비엔날레를 선보일 생각이다. 그동안 비엔날레를 보면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미디어시티서울 2014에서는 우리 감성과 친숙하고 공감 가는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만신> 작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 일본, 타이완 작가 등 현재 70~80% 정도 확정됐다.

**미디어 아트가 진화하면서 이런 미디어아트 비엔날레가 점차 예술의 장이라기보다 '첨단 과학기술 경연장'화 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과학기술에 기초한 인터랙티브 작품 등 미디어 아트 바람이 한 차례 크게 불었다. 물론 기술에 기반한 작품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 자체에 거는 맹목적인 희망이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추세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겪으며 과학기술이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식의 미디어 아트보다는 오히려 과학기술을 반성해야 한다는 여론도 생기고 있다. 무엇보다 기술 유토피아적 예술은 재미도 울림도 없다. 이번 미디어시티서울 2014는 그런 예술 보다는 '미디어가 어떤 의미와 사회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누구나 영상을 찍고 만들 수 있는 시대다. 앞으로 미디어 아트는 어떻게 변화할까?**

-이전까지 가볍고 유쾌하고 재미있는 예술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면 이제 관객들은 깊이와 밀도가 담긴 '뮤지엄다운' 전시를 원하는 것 같다. 대중의 질은 피로감 때문인지 작품을 통해 사고의 자극을 받고자 한다. '명상적 울림'이 있는 작품들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박찬경 감독이 생각하는 한국적 아름다움의 뿌리가 궁금하다.**

-음주 가무를 즐기는 민족성이야말로 한국적 아름다움의 근원이다. 한류도 음주 가무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하지만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영향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특히 같이 때로 어울려 벌이는 음주 가무가 거의 없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술집에 모여 모르는 사람끼리 함께 합창도 하고 그랬다. 이후 그 문화가 노래방으로 이어졌다가 이제는 완전히 미디어로 갔다. 타인의 가무는 보지만 직접 하지는 않는 거다. 음주는 하면서 가무가 없는 것이 진짜 문제다. 타인과의 교류에는 대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진정한 소통은 음주 가무 속에서 이뤄진다. 사람들이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나. 우리 전통 속 <심청전>이나 <춘향전>을 보라. 그곳에서는 대단한 음주 가무의 세계가 펼쳐지고 사람을 휘어잡는 이야기가 가득하다.